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SNS 중독성현상이 정보윤리교육을
매개로 교육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9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보시스템 협동과정

김 민 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SNS 중독성현상이 정보윤리교육을 매개로 교육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하 균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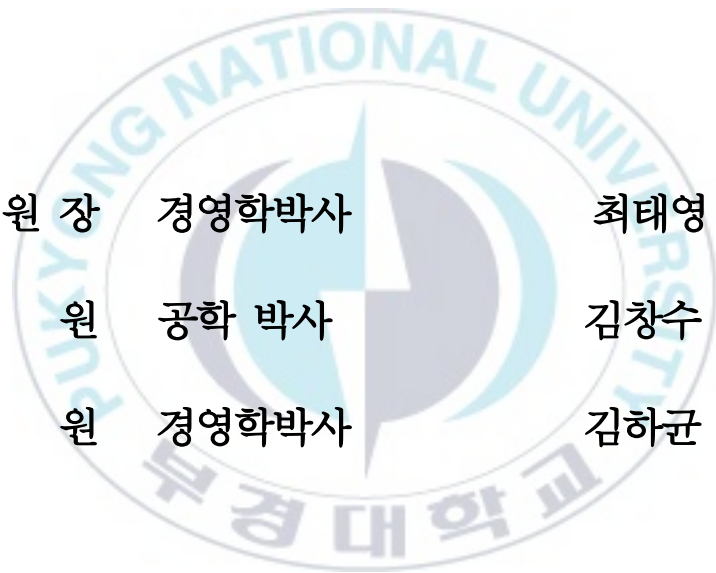
정보시스템 협동과정

김 민 수

김민수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22일

위 원 장	경영학박사	최태영 (인)
위 원	공학 박사	김창수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김하균 (인)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3
제 3 절 연구의 구성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제 1 절 SNS의 특성	5
제 2 절 중독경향성의 개념	5
제 3 절 중독경향성의 특성	7
제 4 절 중독경향성의 실태	11
제 5 절 정보윤리교육의 현황	12
제 6 절 정보윤리교육의 필요성	14
제 7 절 교육만족	15
제 3 장 연구의 설계	17
제 1 절 연구의 모형	17
제 2 절 연구의 가설	17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9
제 4 장 실증분석	21
제 1 절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21

제 2 절 자료의 분석 방법	22
제 3 절 신뢰성 · 타당성 · 상관관계 분석	23
제 4 절 구조모형의 검증	27
제 5 장 결 론	29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29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30
제 3 절 제언	31
[참고문헌]	32
[부 록]	
< 설 문 지 >	35
< 감 사 글 >	38



【표 목 차】

<표 4-1> 표본의 특성	22
<표 4-2> 신뢰도 및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25
<표 4-3>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27
<표 4-4> 가설검정 결과 요약	29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의 모형	17
<그림 4-1> 구조모형 분석 결과	28

요약

SNS 과다 사용은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함께 수반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SNS의 과다 사용이 신체 및 정신의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몰입의 정도가 높은 스마트 폰의 SNS 사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성 현상이 정보윤리교육과 교육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중독성 현상은 정보윤리교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보윤리교육은 교육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향후 발전적인 SNS 중독성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윤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핵심어: SNS 중독성 현상,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대인관계, 정보윤리교육, 교육만족

A Study on the Impact of SNS Addiction phenomenons on Educational
Satisfaction through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Min Soo Kim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t is worth noting that overuse of SNS is accompanied by side effects of 'addiction'. The reason is that the excessive use of SNS affects not onl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but also everyday life. Therefore, there is a great need for the young people to continue their interest in controlling the use time of the SNS of the smart phone with high degree of immers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SNS addictive phenomenon on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ddictive phenomenon of SN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Second,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In order to solve the addictive phenomenon of SNS in the future,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is very important.

Key words : SNS, addiction phenomenons, self-respect, self-regul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 중독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 폰이 보급된 이래 끊이지 않는 사회문제로 부상되어 왔으나 최근, SNS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SNS 과다 사용은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함께 수반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매체의 과다 사용이 신체 및 정신의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SNS 중독은 청소년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변화시켜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스마트 폰의 SNS 사용은 학습 성취도가 상위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스너와 카핀스키(Kirschner & Karpinski, 2010)의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학교성적이 이용하지 않는 대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낮다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중독의 직접적인 효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 폰과 SNS에 중독된 청소년은 학업성적이나 장래에 관한 관심이나 의욕이 떨어지고, 과제나 방 정리 같은 기본적인 할 일조차 하지 않으려고 들며 오직 눈앞의 인터넷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집착한다(이소영, 2000). ‘한번 만, 한번 만 더.’라는 중독의 특성에

비추어 ‘한 시간만, 딱 한 시간만 더.’라는 인터넷 중독의 특성은 자신이 정해 놓은 시간만큼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엔터테인먼트, SNS 등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지만 어느새 자신의 기준을 넘기고, 자아 이질적으로 인터넷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에 더 강한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시간 때우기(killing time)’나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우울감이나 부정적 정서가 낮아질 수 있지만, 지속되는 인터넷 관련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개인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정재홍 외, 2014).

SNS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SNS 중독에 대한 연구도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독이란 욕구충족을 위해 특정 물질이나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으로, 개인이 어떤 대상에 정신적·신체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여, 접촉을 중단할 경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등 조절 및 통제능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SNS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SNS 중독의 명확한 개념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 SNS 중독의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기에 기존 연구에서는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중독경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SNS와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기술 및 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다수 논문들의 영역들은 SNS의 이용 동기나 이용유형에 관한 행태 또는 세대 간의 이용차이 등 기초적인 연구범주에 속하며, SNS의 유용한 면을 강조한 면이 많았다. 하지만 SNS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는 이미 유해성들이 사회적인 논쟁거리로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SNS의 선두주자인 페이스북조차도 자사 서비스의 과다이용 및 중독적 이용에 대해 페이스북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공익광고를 제작, 방송하고 있다(배수경, 2012). 인터넷 사용과 SNS 사용은 온라인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SNS는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중독과 SNS 중독은 공통점도 있지만 개별적인 특성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과 SNS 중독을 구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SNS의 중독성 현상이 정보윤리교육과 교육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요인들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채택하였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SNS 중독성 현상이 정보윤리교육과 교육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통계적 방법을 병행하여 실증 연구를 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검정과 타당성 검정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Smart PLS 2.0을 사용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접근방법인 부분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 : PLS)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조 모형 분석을 통하여 경로 계수와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R^2) 값을 도출하였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기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서는 문헌연구로서 SNS의 특성과 중독 경향성, 정보윤리교육 및 교육 만족에 대한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3장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3장 “연구의 설계”에서는 변수의 선정, 연구모형의 설정, 연구가설의 설정으로 구성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에서는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의 분석방법 그리고 구조모형 검증을 통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논의로 구성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SNS의 특성

김선미(2014)는 자기 감시 성향의 특성상 자기 감시가 높을 경우, SNS에 중독될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을 멋지고 아름답게 위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피승정(2013)은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상처 받은 청소년은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SNS 중독 경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로 인한 연출된 성향을 자기 감시(Self-monitoring)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감시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조작하여 표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은영(2012)은 타인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공개하는 자신의 사진과 프로필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제2절 중독경향성의 개념

중독은 특정 물질이나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신의학에서는 중독을 특정 물질이나 활동에 대한 생리적

의존(physiological dependence)이나 심리적 의존(psychological dependence)으로 보고 있다. 의존(dependence)이란, 사람이 물질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로 통제하기 힘들거나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등 부정적인 면들을 경험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 폰은 이제 밥을 먹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 까지도 휴대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형지·김정환·정세환, 2012) 이는 결국 청소년 사용자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무의식적인 습관적 사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정소영(2014)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 폰 중독, SNS 중독의 정의를 비교하고, 공통점을 제시하며 SNS 중독을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금단 및 내성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하지만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확립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 중독이란 용어 대신 ‘중독경향성’이라 명명하였다. 정소영과 김종남(2014)은 SNS 중독경향성의 심리구성 개념을 현저성, 내성, 기분전환, 재발, 금단, 갈등,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등의 여덟 가지로 정의하였다. 현저성은 개인이 많은 시간을 SNS를 생각하는 데 사용하는 것, 내성은 개인이 SNS에 접속하면 기존에 의도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기분전환은 SNS 이용을 통해 부정적이었던 기분이 SNS를 이용함으로써 나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재발은 SNS 이용 절제, 통제를 결심한 이후에도 다시 SNS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성향을 말하며, 금단은 SNS 접속을 중단할 경우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것을 말한다. SNS의 과다

사용으로 학업, 일, 대인관계 등에 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갈등, SNS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상생활 장애이다. 가상세계 지향성은 현실세계보다는 온라인에서의 관계에서 더 많은 안정감, 친밀감을 느껴 가상공간에 더욱 몰두하는 것을 뜻한다.

제3절 중독경향성의 특성

1. 자아존중감(Self-respect)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자아효능감이 특정한 과제 극복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자아존중감은 평가의 측면을 강조한 자아개념의 특별한 유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자존감을 자기 가치의 긍정성을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써 어떠한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 하는 단기적인 자기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긍정적 분위기의 소셜 네트워크를 방문했을 때, 이용자는 긍정적인 분위기에 전이되어 긍정적 감정 중 하나인 자존감을 높게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부정적 분위기의 소셜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는 이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기분에 전이되어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 SNS는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생활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SNS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SNS는 끌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중독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피승정(2013)은 SNS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을 탐색하며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및 불안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며 고립되어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높은 이상을 갖고 있으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SNS 이용자는 관계형성을 통해 이용자 간에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이용자가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용자는 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기분 전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36, 37].

2. 자기조절(Self-regulation)

긍정심리학에서 자기조절은 ‘자신의 다양한 감정, 욕구, 행동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다른 연구들에서 자기조절

능력은 각각의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중독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설명되어왔다. 특히,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에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현실에서 장래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독에 쉽게 빠진다고 하였다(이계원, 2001).

자기조절은 자신의 의도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금지된 행동,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을 말하며, 행동을 기다리고 유보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 및 자기관리의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조절은 유사한 여러 정의가 있으며, 성격강점에서는 ‘자신의 다양한 감정, 욕구, 행동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이는 자기통제력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Shaffer, 1999; Young, 1999; 송원영, 1998; 김종원, 2002)들과 일치한다.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자의 통제 및 조절불능 상태가 병적 도박 중독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충동조절 장애라고 주장하였다. 충동조절 장애의 필수 증상은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 욕구,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게임중독 청소년 상담사례에서 대부분의 청소년 내담자들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 요인이 된 것이 게임사용량 조절능력의 증진임을 고려할 때, 자기조절은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 중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남들이 지켜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적당한 수준의 사회불안은 오히려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능이나 수행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매우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본인의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학업을 비롯한 대인관계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듯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의 경우 면대 면의 상호작용에 대한 회피 및 부적응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SNS는 주로 개인 및 사회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를 계속 유지 및 관리하는 목적으로 쓰여진다고 볼 수 있다. 커스와 그리피스(Kuss & Griffiths, 2011)는 이러한 목적들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SNS 사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Heider(1964)는 대인관계를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 즉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며 어떤 느낌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을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 하는가에 대한 측면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대인관계란 일방적인 작용이 아닌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상호 교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적응변인이 되며, 개인적인

문제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본 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웅기(2013)는 외로움을 타고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SNS에 대한 중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청소년 집단과 SNS 중독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심리(외로움과 인지욕구)와 이용 동기(습관, 휴식, 대화, 오락, 정보)가 중요한 설명 및 예측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의 특성으로 사회불안(social anxiety)이란 사회적 상황 또는 활동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때 불안을 느끼는 증세로 친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면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 혹은 평가받을 만한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 상황에 대해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며, 자신이 부끄럽거나 당혹스런 행동하게 될까봐 또는 불안 증상을 보일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장애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 V, 2013). 이때 사회적 상황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 하는 상황,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할 때 등 타인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말한다(김현미, 2013).

제4절 중독경향성의 실태

SNS 중독경향성은 SNS 과다사용에 따른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되

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 저하, 강박 등의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오윤경, 2012).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을 보면 청소년의 스마트 폰과 SNS 중독의 심각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미디어 관련 기관들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몰입의 정도가 높은 스마트 폰에서의 SNS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줄 수 있도록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 있어 SNS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기조절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지만, 자기통제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적절한 외부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스마트 폰의 사용을 억제하는 수준의 외부통제가 연계된다면 중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정보윤리교육의 현황

정보윤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컴퓨터 및 컴퓨터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새로이 태동한 컴퓨터 윤리학(computer ethics)을 그 모체로 하고 있다. 본래 컴퓨터 윤리학이라는 용어는 1976년에 월터 매너(Walter Maner)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구현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인 서비스로 인해 다양한 정보가 생성되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비정형화된 정보가 수집·이용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 윤리를 강화하는 정책과제가 요구되고 있다(Fodor, 1996).

기존의 정보윤리교육이나 현재 각 기관에서 만들어진 정보윤리교육을 위한 교재들은 정보화의 역기능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순기능적 측면과 네티켓, 윤리원칙 등은 아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학교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박시형(2016)은 ‘학교에서의 인터넷 윤리교육은 주로 정보·컴퓨터 관련 교과에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정보·컴퓨터 과목에서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행하는 것 보다 여러 교과목에서 통합하여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학교의 인터넷 윤리교육이 중요한 만큼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용 환경의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SNS 상에서의 윤리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즉,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과 중독경향성이 심각해지고 있어 SNS에 중점을 둔 인터넷 윤리교육 또한 필요하다. 특히 심각한 문제점은 익명성에 따른 무책임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도덕성을 매우 약화시키는 존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네트워크 사용자의 성격 특성 등이 한데 어우러져 인간의 도덕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윤리교육은 ‘몸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교육, 상호 의존의 도덕적 의미를 강조하는 교육, 정체성의 혼돈을 예방하는 교육, 정보 사회의 문제에 대한 윤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는 기본 방향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상의 일탈행위들은 SNS에 대한 사회적인 윤리의식의 고취 수준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수준 간의 불균형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급학교에서 여러 가지 정보윤리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사이버 상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분석 없이 정보화의 역기능이나 네티켓과 같은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정보윤리 의식의 변화가 필수적인 정보윤리교육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피동적이고 무기력한 SNS 사용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제6절 정보윤리교육의 필요성

이제 우리는 뒤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과연 우리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적절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우리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더 이상 무기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도덕적 행위자가

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윤리 의식 및 네티켓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보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SNS에서의 비도덕적 행위, 더 나아가 범죄적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사이버 폭력을 재미나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책임한 행동이 남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을 화나게 해서, 또는 친구의 편에서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해자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무작정 행동으로 옮긴다. 특히 최근 사용자와 사용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SNS에서의 적절한 윤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제7절 교육만족

교육은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만족은 부족함이 없이 흡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교육만족도는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보상, 성취 등에 대한 인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 혹은 감정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만족도는 실제 교육학 연구에서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의 수준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학습자들로부터 교육만

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향후 교육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내고, 해당 교육 수강을 통해 조직의 목적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만족도는 학습자 각 개인의 학습자체 또는 주위의 환경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가치 그리고 태도나 신념 등의 수준이나 차원에 따라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된다(유지수, 2011).

대표적인 교육만족 관련 이론에는 Maslow의 욕구충족이론이 있다. Maslow의 욕구충족이론은 인간의 욕구는 1단계의 생리적 욕구, 2단계의 안전의 욕구, 3단계의 애정 및 소속의 욕구, 4단계의 존경의 욕구, 5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로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김종식·임왕규, 2014). 일반적으로 교육만족도의 구성요소를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내용, 강사의 질, 교육결과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이 분류는 교육만족도 연구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하고 교육환경은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교육내용은 교육기관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편성한 교육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강사의 질은 교육생이 교과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고 교육생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강사의 능력을 의미하며, 교육결과는 교육생이 교과목 이수 후 개인의 능력개발 또는 각 분야의 지식, 기술향상 및 인식 등 심리적 변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석진·이승진, 2015).

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SNS 중독성 현상이 정보윤리교육과 교육만족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모형

제2절 연구의 가설

1. SNS 중독성 현상과 정보윤리교육에 관한 가설

SNS 중독성 현상이란, SNS 이용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하고 온라인상의 가상세계를 지향하며 더불어 의존·금단·내성을 동반하며 학문적·사회적·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개

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SNS에 과몰입 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이를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로 SNS를 사용하는 것이 중독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SNS 중독성 현상은 정보윤리교육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정보윤리교육과 교육만족에 관한 가설

Maner는 컴퓨터가 윤리적 문제들과 관련되게 될 때에는 통상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컴퓨터 자체가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Maner는 컴퓨터 및 컴퓨터 기술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윤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Fodor, 1996).

본 연구에서 교육만족은 SNS에 중독된 자가 정보윤리교육을 이수한 후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의식이 함양되어 현대 정보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흡족한 상태에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 정보윤리교육은 교육만족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산세무회계 교육만족도와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품질특성(시스템 특성·정보 특성)과 교육생의 개인 특성 및 조절변수(회계원리 이해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7점 척도(scale)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전혀 아니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다.

1. 특성변수의 조작적 정의

(1) SNS 중독성현상

중독성현상은 SNS사용에서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하고 온라인상의 가상세계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시스템의 용이성에 대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으로는 SNS로 인해 조절실패의 경험, SNS로 인해 몰입 및 내성의 경험, SNS로 인해 부정정서의 회피의 경험, SNS로 인해 가상세계지향의 경험이 있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Likert 7점 척도(scale)로 측정하였다.

<표 3-1> SNS중독성 변수의 설문문항

변수		설문문항	설문내용
시스템 특성	용이성	설문 I 1-4 문항	- SNS에서 조절실패의 경험이 있다. - SNS에서 몰입 및 내성의 경험이 있다. - SNS에서 부정정서의 회피의 경험이 있다. - SNS에서 가상세계지향의 경험이 있다.

(2) 정보윤리교육

정보윤리교육은 컴퓨터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컴퓨터 윤리학을 모체로 다양한 교육으로 정의 된다. 본 연구에서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으로는 인터넷윤리교육을 받은적이 있다. 학교에서 윤리교육을 받음, 가정에서 정보윤리교육을 받음, 산출정보의 내용이 유용함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Likert 7점 척도(scale)로 측정하였다.

정보윤리교육의 정보 특성에 대한 설문문항을 요약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정보윤리교육 변수의 설문문항

변수	설문문항	설문내용
정보윤리교육	설문 II 1-4 문항	-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학교에서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가정에서 정보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산출정보의 내용이 유용하다.

(3) 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는 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전반적인 만족정도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교육만족도에 대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으로는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교육에 만족, 전반적인 제공 정보에 대한 교육에 만족,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에 만족 등의 3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Likert 7점 척도(scale)로 측정하였다.

<표 3-4> 성과변수의 설문문항

변수	설문문항	설문내용
교육만족도	설문 IV 1-3 문항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교육에 만족 -전반적인 제공정보에 대한 교육에 만족 -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에 만족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018년 5월 11일까지 직접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총 250명의 사용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기본통계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43%는 남학생, 57%는 여학생이다.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있어서 평균연령은 16.8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부생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학생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생 40.7%, 고등학생 30.3%로 제일 많았다. 가설검정을 위하여 Smart PLS 2.0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특성(n=250)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43
	여자		57
연령	12이상 ~13이하		10
	14이하		14
	15이하		13
	16이하		40
	17이하		23
학력	중학교 1학년		10.9
	중학교 2학년		30.3
	중학교 3학년		30.7
	고등 1학년		15.0
	고등 2학년		13.1

제2절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분석을 위해 기초통계는 SPSS 22.0과 구조방정식

패키지인 Smart PLS 2.0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중타당성은 각 요인의 요인적재 값, 구성신뢰도(C. R.) 및 분산추출지수 값(AVE)을 검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 값은 0.6 이상, 구성신뢰도 값은 0.7 이상 및 분산추출지수 값은 0.5 이상이다. 판별타당성은 분산추출지수 값의 제곱근 값과 상관관계계수를 비교해본 결과 분산추출지수 값이 종과 횡의 상관관계수 값보다 크므로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다.

제3절 신뢰성 · 타당성 · 상관관계 분석

1. 신뢰성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이란 넓은 의미에서 측정상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연구대상인 응답자에게 반복적인 측정을 했을 경우에 응답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났느냐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검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α 계수에 대한 통일된 절삭(cut-off) 기준은 없으나 Nunnally(1978)에 의하면 예비적 조사연구(preliminary research)에서는 α 계수가 0.5~0.6 정도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미 기존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경우에는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이형석, 2010, p. 190).

2. 타당성 분석

타당성(validity)이란 최대한 상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속성을 두 시도 간 결과의 일치 정도로써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내용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서 제대로 측정되었는가에 관한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서로 상이한 개념에 대하여 각각 여러 가지의 측정도구들을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후 각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였을 때 추출된 요인들이 원래 의도한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 끼리 묶여 하나의 요인을 형성함으로써 서로 다른 요인들 간에는 상호 독립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요인 내에 묶여진 문항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고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없으므로 각각의 요인들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이형석, 2010, p. 192).

[표 4-2] 신뢰도 및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요인적재 값	AVE	C. R.	Cronbach's α
SNS중독성현상	0.732	0.659	0.884	0.830
	0.892			
	0.825			
	0.787			
정보윤리교육	0.924	0.850	0.944	0.912
	0.896			
	0.831			
	0.829			
교육만족	0.909	0.759	0.926	0.893
	0.941			
	0.916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만약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0에서 ± 1 사이로 나타나며 ± 1 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즉, 변화의 강도는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높고 변화의 방향은 +는 정의 방향, -는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 0.9 이상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 $\pm 0.7 \sim \pm 0.9$ 미만은 높은 상관관계, $\pm 0.4 \sim \pm 0.7$ 미만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 $\pm 0.2 \sim \pm 0.4$ 미만은 낮은 상관관계, ± 0.2 미만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송지준, 2013, p. 121).

통계적으로 볼 때 탐색적 요인분석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요인 분석 시에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 기본적 가정이 독립변수들 각각은 독립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야 되지만 독립변수들 간에도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상관관계가 서로 높은 것끼리 묶어서 적은 수의 새로운 독립변수를 추출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인분석이다(이형석, 2010, p. 137).

다중공선성은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검증 결과 모든 가설검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판별타당성은 AVE 값의 제곱근 값과 잠재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방법을 통해 AVE 값이 다른 잠재변수 간의 종과 횡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E의 제곱근이 상관계수의 종과 횡의 값을 초과하므로 판별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상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AVE	1	2	3
SNS 중독성현상	0.659	0.811		
정보윤리교육	0.850	0.549	0.921	
교육만족	0.759	0.571	0.701	0.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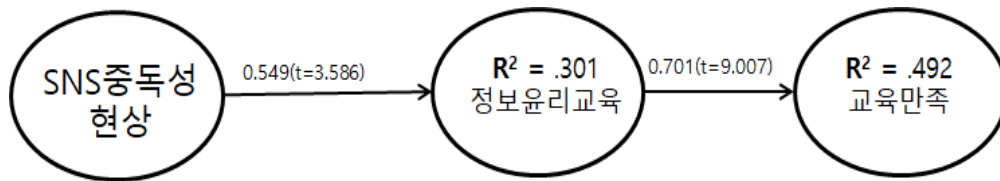
제4절 구조모형의 검증

구조모형의 검증은 Smart PLS 2.0을 사용하여 2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측정변수들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측정항목은 제거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 값이 기준치인 0.6을 모두 상회하므로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념 간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구조모형을 추정하였다.

1.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구조모형 분석은 Smart PLS 2.0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모형 분석을 통하여 경로계수와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R^2) 값을 도출하였다.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R^2)의 결과 값은 예측변수가 갖는 총 변동 중에서 회귀선,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R^2 값이 0.26 이상이면 적합도를 ‘상’으로 0.26~0.13이면 ‘중’으로 0.13 이하의 적합도를 ‘하’로 표시할 수 있다(Cohen, 1988). 구성요소 값이

정보윤리교육(0.301)과 교육만족(0.492)에 대한 결정계수(R²)값은 ‘상(high)’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구조모형 분석 결과

2. 가설검정 결과

앞에서 살펴 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 검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설 H1에서 SNS 중독성현상과 정보윤리교육($\beta=0.549$, $t=3.586$, $p<0.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중독성현상은 정보윤리교육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H2의 정보윤리교육과 교육만족($\beta=0.703$, $t=8.802$, $p<0.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윤리교육이 받으면 교육만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PL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가설검정 결과 요약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β)	t-value	채택 유무
H1: SNS중독성현상 → 정보윤리교육	0.549	3.589	채택
H2: 정보윤리교육 → 교육만족	0.701	9.007	채택
t=1.97*, p <0.05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성현상(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대인관계)이 정보윤리교육과 교육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중독성현상은 정보윤리교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보윤리교육은 교육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하여 SNS 중독성현상, 정보윤리교육, 교육만족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고 또한 SNS 중독성현상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 SNS 중독성현상과 정보윤리교육, 교육만족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에 대해 의의를 둔다. 또한 SNS 중독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정보윤리교육 및 교육만족의 연구모델을 인지함으로써, SNS 중독성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SNS 중독성현상(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대인관계)을 해결하고자 준비하는 개인 및 기관(각급학교)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제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향후 SNS 중독성현상에 대한 연구 대상의 확대이다. SNS 중독성현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학령별, 학교급별, 지역별 등으로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연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대인관계로 한정하였다. 향후 발전적으로 SNS 중독성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윤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외생변수를 더욱 확장한 연구가 계속되어 저야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이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하다. SNS 이외에도 게임, 인터넷 쇼핑, 정보검색 등 인터넷의 주된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유형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활용 유형간의 세분화된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였지만 향후의 연구에서는 활용 유형을 세분화하여 그 차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지금까지의 SNS 중독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며 인터넷 중독과 SNS 중독을 구분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제3절 제언

SNS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는 사이버 폭력, 미확인 정보의 재가공 및 무차별적인 유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향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정보윤리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정보윤리 의식의 고취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넷째, SNS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섯째,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보윤리교육 연수를 컴퓨터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의 교사들이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현직 교사로 학교 현장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교사에 대한 재교육도 한층 더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정보윤리 의식의 사회적 확산은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사회적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김선미(2014),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감시, 수용행동 및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종식·임왕규(2014), 노인평생교육 참여 동기가 교육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5호, pp. 179-189.

김종원(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요인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김현미(2013), 중학생의 사회적 성취목표에 따른 사회불안, 친사회성 및 공격성,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나은영(2012),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소셜 미디어,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pp. 5-26.

로려(路麗)(2011), 회계정보시스템 특성변수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시형(2016), SNS 언어폭력 실태와 인터넷 윤리교육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미

- 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송지준(2013),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시, 21세기사.
- 오윤경(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유지수(2011), 치위생학 전공심화과정 학습자의 참여 동기, 교육기관기대, 교육만족도가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석진·이승진(2015), 성인 평생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와 교육만족도에 관한 메타분석, 평생학습사회, 제11권 제4호, pp. 165-193.
- 이소영(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형석(2010), 사회과학 논문의 기초, 서울, 한경사.
- 정소영(2014),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소영·김종남(2014),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9권 제1호, pp. 147-166.
- 정재홍·이민규(2014), 감각추구, 충동성, 인터넷 중독 및 부정적 정서간의 인과모형 탐색: 성격강점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9권 제3호, pp. 747 - 767.
- 피승정(2013), SNS 사용행동에 따른 SNS중독가능성, 자아존중감, 대

인관계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외문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 5(201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Fodor, J. L.(1996), Human values in the computer revolution, In Joseph M. Kizza (Ed.). Social and ethical effects of the computer revolution, Jefferson, NC: McFarland.

Heider, F.(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Peterson, C., & Seligman, M.(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Washington, D.C: APA Press and Oxford University Press.

Shafer, H. J.(1999). On the nature and meaning of addiction. Natural Forum, Vol. 4, pp. 9-14.

Young, K. S.(1999),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Student British Medical Journal.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3, pp. 237-244.

[부 록]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 SNS 언어폭력성이 정보윤리교육을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보시스템 협동과정

지도교수 : 김하균 교수님

연구자 : 김민수

연 락 처 : 010-0000-0000

E- mail :

■ 다음의 각 설문 문항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I. SNS중독성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NO	설문내용	매우 부정	조금 부정	보통 이하	보통	보통 이상	조금 긍정	매우 긍정
1	SNS로 인해 조절실패의 경험이 있다.							
2	SNS로 인해 몰입 및 내성의 경험이 있다.							
3	SNS로 인해 부정정서의 회피의 경험이 있다.							
4	SNS로 인해 가상세계지향의 경험이 있다.							

II. 정보윤리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NO	설문내용	매우 부정	조금 부정	보통 이하	보통	보통 이상	조금 긍정	매우 긍정
1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은적이 있다.							
2	학교에서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3	가정에서 정보윤리교육을 받은적이 있다.							
4	산출정보의 내용이 유용하다.							

III 교육만족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NO	설 문 내 용	매우 부정	조금 부정	보통 이하	보통	보통 이상	조금 긍정	매우 긍정
1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교육에 만족한다.							
2	전반적인 제공정보에 대한 교육에 만족한다.							
3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에 만족한다.							

VII. 인구 · 통계학적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NO	설 문 내 용
1	당신의 성별은 남 여
2	당신의 연령은
3	현재 학년은(중 · 고 학년)

♡ 소중한 시간 대단히 감사 합니다. ♡

< 감사의 글 >

석사과정 2년이라는 시간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미래의 방향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도해주신 김하균 교수님 그리고 부족한 논문을 심사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으로 도움을 주신 최태영 교수님, 김창수 교수님, 김하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강의와 지도를 해주신 김현규 교수님 그리고 자료의 정리와 논문 작성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시고 도와주신 김홍국 사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문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2월

김 민 수